WEEKLY IBK 경제브리프
(736호) 2020-09-15
IBK경제연구소

코로나19 확산 이후 신흥국 경제위기 점검

□ (배경)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외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 증대

○ 인도(2위), 브라질(3위) 등 주요 신흥국은 높은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, 남아공 등 80개국에 대해 IMF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자금* 지원

* 신속금융제도(RCF·RFI)·재난억제 및 구호기금(CCRT) 등 총 881억달러 지원(9.2일 기준)

○ 세계은행과 IMF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신흥국 경제의 역성장을 전망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

※ 경제성장률 전망('20.1월 → 6월, %) : 세계은행 4.1 → △2.5, IMF 4.4 → △3.0

□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흥국 금융시장 및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

○ **(채무불이행 리스크)** 신흥국 CDS 프리미엄은 전년말대비 크게 상승했으며,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신흥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

- 코로나19 이후 일부 신흥국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대외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
- 멕시코, 남아공 등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증대로 신용등급 하락

< CDS 프리미엄 >

(bp)	'19년말 (A)	9.9일 (B)	증감 (B-A)
남아공	165	285	+120
터 키	283	507	+224
멕시코	79	120	+41
브라질	102	204	+102
인 도	65	79	+14

주 : 5년물 기준, 자료 : Bloomberg

< 신용등급 조정 >

	조정전	조정후	조정 시점
멕시코	BBB+	BBB	'20.3
남아공	BB	BB-	'20.4
인도네시아	BBB (안정적)	BBB (부정적)	'20.4
브라질	BB- (긍정적)	BB- (안정적)	'20.4

자료 : S&P

○ **(환율)** 신흥국 중앙은행의 전례없는 양적완화 및 외국인 자본유출 등으로 브라질(헤알), 터키(리라) 등 신흥국 통화가치 절하

- 위험회피심리 확대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하고, 코로나19로 인한 실물충격의 영향이 큰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유출*

* '20.3~4월 신흥국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('08.9~10월)의 유출규모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896억달러(국제금융협회(IIF) 기준)

- JP모건 신흥국 통화지수(EMCI)*는 지난 4.27일 사상 최저수준인 52.3을 기록한 이후 전년말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

* 신흥국(칠레, 브라질, 멕시코, 싱가포르, 중국, 인도, 헝가리, 남아공, 러시아, 터키)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지수

※ EMCI : 61.4('19년말) ⇒ 52.3(4.27) ⇒ 54.3(6.30) → 55.6(7.31) → 55.4(8.31)

○ **(경기둔화)** 글로벌 수요감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국내 봉쇄조치 등으로 신흥국 수출 및 생산 감소세 확대

- 유럽, 미국의 확진자 증가 영향으로 글로벌 무역거래 위축

- 방역조치로써 이동제한, 공장가동 정지 등이 시행되면서 주요 신흥국 제조업PMI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경제활동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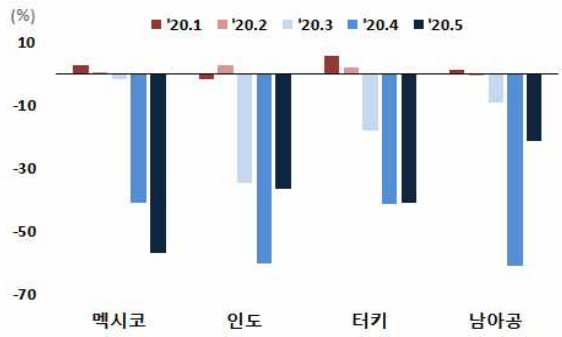
※ 신흥국 제조업 PMI(기준=50) : 58.8('20.1) ⇒ 34.5(4) → 34.8(5) → 35.2(6) → 37.5(7) → 38.0(8)

< 환 율 >



주 : 달러인덱스 '73년=100, 자료 : Bloomberg

< 수 출 >



주 : 전년동월대비, 자료 : Bloomberg

□ (시사점)

○ 터키, 멕시코 등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국내경제에 전이될 우려도 상존

○ 다만, 한은 총재는 양호한 대외건전성, 경상수지 흑자 지속,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으로 신흥국 위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(작성자 : 경제경영연구실 대리 이지현 jeehyunlee27@ibk.co.kr / ☎02-729-6623)